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4월 2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5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울레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 강민선 -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를 타고 40분 거리
에 있는 연화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살다
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결혼을 하고 이곳
경기도 시흥시 목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연년생인
아들 둘을 키우며 살던 중에 층간 소음 때문에
1층으로 이사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
니다. 은혜와진리교회의 권사님과 구역장님 두
분이 전도하러 우리 집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집
으로 이사 온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
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도록 기도
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실하고 사랑이 충만한신
복음전도자를 만나고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충
만한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인지 깊이 깨달으며 인도하신 하나님
께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
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
다. 특히 남편의 핍박이 심했던 기간 동안 부부
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집 안에서 숨이 막힐 듯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서 아들을 통해 전해 주었습니다. 제
가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면 석 달 후에 집을 나
가겠다는 통고였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이 워낙 완고하므로 하는 수
없이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세의 능력을 맛보고’(히브리서 6:4,5) 주님을 떠
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보는 가
운데서 저는 남편에게 빌다시피 사정을 하였습
니다. 교회에 다닐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하나
님께 예배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만 있다면 하고 자존심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의 허락을 얻고, 교회
에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
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산다는 것
이 참으로 큰 복인 것을 그 때 절감하였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져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
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다가 야간에 식당일
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쯤 되었을 때, 몸
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난소암이었습니다. 6시간에 걸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이어서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주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남편과 함께 교회
에 가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
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황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배
풀어 주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몇 년 후에, 저의 권유로 큰아들이 경찰공무
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합격하기까지
여러 번을 거듭 불합격하였습니다. 계속 필기시
험에서 떨어져 중도에 포기했다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아들이 힘들어 하였고 그런 아들을 뒷바
라지하는 저 역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빛이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출퇴근하는 차 안
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이 편두통이 극심하여 공부하는 데 방해
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에 낮은 신유의 은혜를 체
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필기시험에 합
격을 하고, 체력검사 일주일 전에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그만 무릎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절뚝거
리며 잘 걷지를 못해 시험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었는데, 시험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
로 무릎이 나아서 체력검사를 통과하고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다른 말씀은 다 믿어도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만은 못 믿겠다고 하소연하며 하나
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후로 저는 어려
운 일을 만나면 시편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울레를 배
우게 되었나이다’(시편 119:71)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외모, 재능 등 그 어느 하나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없는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
시고 영생의 복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
버지께 한이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
고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고백을 할 때면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
립니다. 기쁨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입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
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감사 찬송하
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8단원 : 성도의 생활 자세)

(제47과) 생명을 존중하는 성도

- **본문** : 창세기 9:5-7
- **요절** :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
- **찬송** : 275장(새찬송가 498장), 278장(새찬송가 220장)

기독교를 일컬어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시 42:8),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시며(행 3:15),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행 5:20).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은 다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김으로 인명 경시 풍조가 팽배해져 가는 때일수록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동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2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함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도덕적 존재라 함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어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 하신 말씀과, ‘혀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약 3:9)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억압을 가하는 것이나, 술, 담배, 마약이나 무절제한 생활로 자신의 몸을 망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죄가 됩니다. 더욱이 무슨 이유로든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무서운 죄가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2.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우주를 탐사하며, 깊은 바닷속에서 자원을 캐내며, 생명 공학을 발전시켜 식량을 증산하고 가축 종자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 의술의 발달은 장기 이식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한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생명의 영역입니다.

현대의 발달한 과학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하더라도 가장 원시 생명체인 아메바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생명에 관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형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삼상 2:6). 하나님은 십계명 중 여섯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고 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해롭게 할 권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죄가 될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범죄가 되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일 3:15)는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복돋아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적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밀어 넣는 사단과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시며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이웃 사람들의 생명을 복돋아 주고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거창한 일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방하여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 환자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라든가, 헌혈에 동참하여 피가 없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위의 무의탁 노인들을 도와주어 그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게 한다든지,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므로써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밝고 온정이 넘치는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이 어떠한지 남녀노소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 영생의 길로 인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